

조선후기의 무과제도와 한국의 근대성

Eugene Y. Park *

1. 문제의 제기
2. 무과제도의 확립과 운영
3. 조선후기의 무과와 양반사대부 집단의 계층분화
4. 무과에 대한 피지배층민의 태도
5. 근대성이란 관점에서 본 무과제도의 의의

1. 문제의 제기

500여년이나 존속한 조선왕조는 중기의 양란(兩亂)과 말기의 열강으로부터의 침투를 제외하면 외세의 위협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신분의 남성 수백만 명이 무과급제를 위해 활 쏘기, 창 다루기, 승마, 격구, 조총 사격 등의 무예 연마와 장수(將帥)의 교양을 위한 경전 강독에 노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관직 등용이 거의 보장되었던 문과급제자와는 달리 무과급제자는 극히 일부만이 임용되었다. 조선시대 통틀어 중앙권력을 문반 사대부가 독점했음에도 불구하고 무과의 실행 빈도수와 규모는 오히려 증가했다. 그렇지만 19세기에 들어와 내적, 외적인 여러 불안 요소가 누적된 상황에서 조선의 군사력은 미흡했다.

이상의 제현상은 많은 의문점을 제기한다. 국가가 실제로 무과급제자에게 제수한 관품이나 관직의 수는 한정되어 있었는데도 왜 급제자수는 오히려 증가했을까? 실전에 투입될 병력의 필요성이 전무한 상황에서도 국가는 어떤 이유로 대규모의 무반 선발제도를 유지했을까? 궁극적으로 조선의 군사제도는 어찌하여 주권수호에 실패했을까?

조선의 무과제도를 살펴봄으로써 이러한 의문점들에 대한 설명을 구할 수 있다. 세습화된 당쟁은 중앙권력을 소수의 경화거족(京華巨族) 가문이 독점하게 하여 기

* 펜실베이니아대 사학과 한국국제교류재단 석좌 사학 부교수

타 양반사대부 가문은 정치권에서 소외되는 상황을 초래했다. 그런데 권력의 주변에 있던 일부 서울 양반사대부 가문은 무과를 통해 별열무반(閥閼武班)화하여 기득권 문반을 보좌하면서 그들과 국가의 후원을 받는 세력이 되었다. 남부지방 향촌의 일부 재지사족(在地土族) 역시 무반직을 통하여 중앙정치권에서 자신들의 좁아진 입지를 보존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정치적 역할분담에 따른 계층분화에도 불구하고 남부의 재지사족, 서울의 별열무반, 그리고 경화거족 문반은 서로를 신분적으로 동일한 양반사대부로 인정했다. 이와 동시에 북부지방 향촌 유력 가문과 전국의 하층민도 조선중기(선조조~현종조)부터 무과에 대거 진출하기 시작했다. 무과제도는 양반 사대부 출신 무과급제자의 존재 그 자체를 통해 위상을 유지하면서 다양한 사회 세력의 신분상승 욕구를 어느정도 충족시켜 주었지만 그들로 하여금 권력구조에의 참여나 양반사대부로서의 신분 성취까지 가능하게 한 것은 아니었다. 이러한 상황을 통틀어서 볼 때 무과는 첫째, 정치 제도로서 양반 사대부 집단 일부로 하여금 권력 구조 내 입지를 유지하게끔 해주었고 둘째, 사회문화적인 매체로서 경직된 신분질서 내에서 증폭되던 긴장감을 분출시키는 통로로 기능하였다.

무과에 관한 연구에는 자료상의 제약이 있다. 우선 현존하는 방목(榜目), 즉 합격자의 이름과 간단한 신상정보를 기록한 명단을 통해 합격자 전원 또는 대다수를 파악할 수 있는 다른 과거시험과는 달리 무과는 기록이 불완전하다. 알려진 무과 방목에 기록된 급제자는 15만에서 17만 명에 달하는 조선시대 전체 무과 급제자(문과급제자 14,600여 명의 10배 이상) 가운데 약 2만 4천 명, 즉 16% 미만에 불과하다.¹⁾ 자료를 통해 나타나는 무반관련 정보 역시 문반이나 문인의 그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 이러한 자료상의 제약 때문에 1980년대 후반까지도 무과에 대한 이해는 상당히 부족한 형편이었다. 예컨대 1974년에 출간된 『무과총요(武科總要)』란 자료의 영인본 해제는 하층민이 무과를 통해 양반관료로 진출할 수 있었다는 취지의 설명까지 제시할 정도였다.²⁾

무과가 신분상승의 통로였다는 인식은 80년대에 들어오면서 조선후기(숙종조~철종조) 연구가 활성화됨에 따라 흔들리기 시작했는데, 이후 무과 관련 연구는 대략 세 부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조선 중기부터 급격히 증가한 무과급제자의 수가 조선전기(태조조~명종조)에 성립된 신분질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에 초

1) 조선시대 무과급제자와 관련한 이하 모든 통계는 별도의 인용이 없는 경우는 필자 개인의 조선시대 무과 급제자 데이터베이스(Microsoft Access 파일)를 참조했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무과방목, 실록, 무보, 지방지, 향안 등등의 자료에서 찾은 35,053명의 급제자 신상 기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조선후기 무과 방목 기재 내용을 Microsoft Excel 파일로 제공해 주신 정해은 박사님께 사의를 표한다.

2) 유시부, 1974 「해제」 『武科總要』, 장서각, vii-viii면.

점을 둔 연구이다.³⁾ 중기 이후의 무과제도를 이전 제도의 변형체로 보는 인식은 아직도 한국사 서술에서 흔한 '신분질서의 문란'과 같은 표현에서 볼 수 있듯이 조선중기 이후의 역사를 비교적 단순히 왕조의 쇠락과정으로 여기는 사관(史觀)과 무관하지 않다.

이러한 문제점을 의식한 두 번째 부류의 연구는 보다 넓은 사회적 맥락에서 무과를 분석하는 것인데, 현재 무과 연구에서 주류를 형성한다. 이들은 상당수의 경우 왜란(1592~98), 호란(1627, 1636~37)과 같은 조선중기의 위기가 종래 연구자들의 주장처럼 과연 전기 사회질서의 대대적인 개편 및 하층민의 신분상승을 초래했는지에 대해서 보다 조심스러운 입장을 표명한다.⁴⁾ 이러한 연구는 무과방목과 같이 예전에 별로 주목받지 못했던 자료를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무과급제자의 출신배경 및 진로를 고찰한다. 다만 연구의 대부분이 어느 특정 시기에 집중되어, 좀더 거시적인 해석을 제시하는 데에는 아쉬운 면이 있다.

셋째로, 중앙관료체제나 정치권 내 무과급제자의 역할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있다. 이러한 접근은 무과와 정치권력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점에서 특히 의미가 있다.⁵⁾ 양반관료 충원제도가 하층민의 신분상승 매개체로 혹은 수단으로 변질되었다는 해석에서 진일보하여, 무과가 집권층 분화 및 정치권력 분산에 있어서 어떠한

3) 이홍렬, 1964 「만과 실행의 정책사적 추의 : 조선중기를 중심으로」 『사학연구』 18 ; 송준호, 1977 「이조 후기의 무과의 운영실태에 관하여 : 정다산의 오랍설을 중심으로」 『전북사학』 1 참조.

4) 대표적인 논저로 윤희표, 1987 「조선초기 무과제도 연구」 『학림』 1 ; 심승구, 1994 「조선전기 무과연구」, 국민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심승구, 1994 「조선 선조대 무과급제자의 분석 : 1583~1584년 대량시취 방목을 중심으로」 『역사학보』 144 ; 이홍두, 1996 「무과를 통해 본 조선 후기 천인의 신분변동」 『민족문화』 19 ; 심승구, 1996 「임진왜란 중 무과급제자의 신분과 특성 : 1594년(선조 27)의 별시무과방목을 중심으로」 『한국사연구』 92, 109-46면 ; 심승구, 1997 「임진왜란중 무과의 운영실태와 기능」 『조선시대사학보』 1 ; 정재혁, 1997 「입진조국전쟁시기 무과에 의한 노비면천에 대하여」 『력사과학』 ; 심승구, 1999 「조선 단종대 무과급제자의 신분과 그 정치적 성격 : 1453년(단종 1)의 식년시방목을 중심으로」 『진단학보』 88 ; 이홍두, 1999 「조선시대 신분변동 연구 : 천인의 신분상승을 중심으로」, 혜안 ; 정해은, 1999 「병자호란 시기 군공면천인의 무과급제와 신분변화 : '정축정시무과방목'(1637년)을 중심으로」 『조선시대사학보』 9, 71-104면 ; 박영진(Eugene Y. Park), 2001 「조선초기 무과출신의 사회적 지위 : 태종~성종년간의 급제자를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 39 ; 심승구, 2002 「조선후기 무과의 운영과 기능 : 만과를 중심으로」 『조선시대사학보』 23 ; 정해은, 2002 「조선후기 무과급제자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박사학위 논문 ; 나영일, 2005 『'무과충요' 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등이 있다.

5) 이와 관련된 선행 연구로 최승희, 1988 「조선후기 양반의 사관과 가세변동 : 선산 무반가 노상추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사론』 19 ; 배우성, 1991 「정조년간 무반군영대장과 군영정책」 『한국사론』 24 ; 정해은, 1998 「무보를 통해서 본 19세기 무과급제자의 관직진출 양상」 『조선시대의 사회와 사상』 (조선사회연구회 편, 조선사회연구회 ; 장필기, 1999 「조선후기 무반기문의 별열화와 그 성격」, 영남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오수강, 2000 「18세기 평안도 무반층의 중앙 진출과 그 한계」 『난곡 이은순 교수 정년기념사학논문집』 (논문간행위원회 편), 관악사 ; 정해은, 2001 「조선후기 선천의 운영과 선천인의 서반직 진출 양상」 『역사와 현실』 39 ; 정해은, 2003 「18세기 경상도 단성현의 한 양반 무과급제자의 사관과 처세」 『조선시대사학보』 26 ; 정해은, 2003 「조선후기 무과 장원급제자의 관직 진출」 『조선시대의 과거와 벼슬』 (허홍식 등 공저), 집문당 ; 장필기, 2004 「조선후기 무반별족가문 연구」, 집문당 등이 있다.

기능을 담당하였는지에 대한 설명도 제시한다.

기존의 연구가 대체로 어느 특정시기, 무과의 제도로서의 기능과 급제자의 면모를 밝히는 것에 공헌한 것은 분명하다. 필자는 이와 함께 무과를 통해 한국사에서 근대 이행기로서의 근세(early modern)의 사회변화, 즉 근대성(modernity)의 대두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 제도가 어떤 거시적인 패러다임과 부합하는지에 대한 고민도 절실하다고 본다. 이 글에서는 조선시대의 무과를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고찰해보고자 한다. 우선 조선전기 무과의 운영실태와 급제자의 면모를 살핀 뒤 중기부터 변화를 겪기 시작한 무과가 후기에 이르러 양반사대부의 계층 분화, 북부 지방 유력 가문들 및 전국의 피지배층민의 신분 상승 욕구 충족 등에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검토할 것이다. 끝으로, 근대 이행기란 시각에서 무과제도의 의의를 음미해 보면서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무과제도의 확립과 운영, 그리고 지배층 계층분화에 관한 논의는 필자의 논저들을 포함한 기존 연구를 토대로 한다고 미리 밝혀둔다.

2. 무과제도의 확립과 운영

문·무반으로 구성된 ‘양반’ 중앙관료제의 기원은 고려시대로 소급된다. 문신의 반발로 단명했던 고려의 무과제도(1109~33)가 시사하듯이 처음에는 정치적 위상과 사회적 지위에 있어서 문반이 무반에 비해 우세했다.⁶⁾ 하지만 무인정권(1170~1270)을 거치면서 문·무반 중앙관료는 하나의 동질적인 집권층 세력으로서 통합되었을 뿐만 아니라 고려 말기에 이르러서는 양반사대부는 전횡적 관료에다 그들의 친족과 후손까지 포함하는 혈통적 의미로서의 신분집단이 되었다.⁷⁾ 이러한 과정과 더불어, 1350년대부터 잦은 전란에 대처하기에 다급한 국가가 사병(私兵)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무인들이 두각을 나타냈다.⁸⁾

이 과정에서 과거제도는 가장 중요한 중앙관료 충원제도로 자리를 잡았지만 한편으로는 집권층의 신분과 특권을 보다 확고히 하는 매체로서의 역할도 담당했

6) Edward J. Shultz, 2000 *Generals and Scholars: Military Rule in Medieval Korea*, University of Hawaii Press, pp. 9-109.

7) John B. Duncan, 2000 *The Origins of the Chosŏn Dynasty*,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pp. 60-63, 80-81, 88-89, 152, 197-99, 218-20.

8) 민현규, 1983 「조선초기의 사병」 『제십삼회 동양학 학술회의 강연 초』, 단국대 동양학연구소, 33-36면.

다.⁹⁾ 이후 조선왕조는 일련의 군제개편을 통해 모든 병력을 국가의 통제 아래 놓는데,¹⁰⁾ 즉 태종(재위 1400~18)은 사병혁파(1400)에 이어 2년 뒤인 1402년부터는 경전에 대한 지식과 무예를 겸비한 자들을 선발하기 위해 무과를 시행했다.¹¹⁾ 이렇게 출발한 무과는 과거제도가 폐지되는 1894년까지 문과와 동시에 실행되었다. 3년마다 실행된 정규 시험을 식년시(式年試)라 하는데, 이외에도 다양한 비정규 시험인 별시(別試)를 통하여 인재를 등용하였다. 초시(初試), 복시(覆試), 전시(殿試) 등의 3단계가 있는 식년시와는 달리 별시에서는 이 중 한두 과정이 생략되었다.¹²⁾ 조선중기부터는 별시의 빈도수와 급제자수가 증가했는데, 이는 급제자의 자질 저하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다.¹³⁾

문·무를 겸비한 이상적인 무인 선발은 처음부터 여의치 않았다. 무예에 뛰어난 응시자는 강경(講經)에서 뒤처지는 경우가 허다했고, 반대로 강경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응시자는 무예가 부족한 경우가 많았던 것이다. 15세기 내내, 특히 세종대(1418~50) 조정은 급제자의 문·무 겸비에 있어서 균형을 잡고자 무과시험의 내용을 누차 조정해 보았지만 만족스러운 해결책은 찾지 못했다.¹⁴⁾ 이뿐만 아니라, 무과가 문과에 비해 쉬운 입사로(入仕路)라는 인식이 무과 시행 거의 직후부터 팽배해져 양반집권층 사이에는 문과에 비해 무과를 경시하는 경향도 나타났다.¹⁵⁾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전기에는 무과출신의 정치적 위상과 사회적 지위가 높았다. 특히 15세기 중반 북방의 여진에 대처한 군사작전과 정변을 통한 세조(재위

9) J. B. Duncan, *op. cit.*, pp. 20, 32-33, 61-63, 78-81, 192-93.

10) 『太祖實錄』 권1, 43 뒷면(태조 1392년 7월 丁未), 50 뒷면(태조 1392년 8월 辛亥), 권2, 3 뒷면(태조 1392년 9월 己亥). 본 논문의 모든 實錄 인용은 『朝鮮王朝實錄』(국사편찬위원회 영인본, 1955-58)을 참조한다. 군제개편 과정을 설명하는 2차 자료로는 차문섭, 1973 『조선시대 군제 연구』, 단국대학교 출판부, 1-135면; 민현구, 앞의 논문, 37면; 한영우, 1983 『조선전기 사회경제 연구』, 을유문화사, 52-53면; 차문섭, 1996 『조선시대 군사관계 연구』, 단국대학교 출판부, 3-38, 249-52, 347-78면; Eugene Youngin Park, 1999 "Military Officials in Chosŏn Korea," Ph.D. dissertation, Harvard University, pp. 76-80, 86 등 참조.

11) 『太宗實錄』 권3, 3 앞면(태종 2년 1월 己丑). 태종조 무과제도의 확립에 관하여는 E. Y. Park, *op. cit.*, pp. 80, 103-5 참조.

12) 『明宗實錄』 권27, 21 앞면(명종 1561년 4월 戊申). 비정규 무과의 증가에 관한 논의는 윤훈표, 1987 「조선초기 무과제도 연구」 『학림』 9, 32-41면; 심승구, 1989 「조선초기 무과제도」 『북악사론』 1, 36-45면; E. Y. Park, *op. cit.*, pp. 90-91; 정해은, 『조선후기 무과급제자 연구』, 34-64면 등 참조.

13) 『明宗實錄』 권27, 21 앞면(명종 1561년 4월 戊申); 『燃藜室記述 別集』 권10(조선광문회 영인본, 1914), 4면. 별시의 빈도수와 급제자수 증가 및 급제자의 자질 저하의 논의는 Eugene Y. Park, 2001 "Military Examination Graduates in Sixteenth-Century Korea: Political Upheaval, Social Change, and Security Crisis," *Journal of Asian History* 35.1, pp. 5, 11-12; 정해은, 위의 학위논문, 21면 참조.

14) 『世宗實錄』 권28, 8 뒷면(세종 7년 4월 戊午), 권30, 15 뒤-16 앞면(세종 7년 11월 乙卯), 권48, 25 앞-뒷면(세종 12년 6월 庚午), 권49, 35 뒤-36 앞면(세종 12년 9월 己未).

15) E. Y. Park, "Military Officials in Chosŏn Korea," p. 108.

1455~68)의 즉위와 같은 급박한 중앙 정계의 상황은 유능한 무인을 요구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무과출신은 대개 무반관직에 제수되었을 뿐만 아니라 상당수는 고위 문반 요직에까지 진출할 수 있었다.¹⁶⁾ 응시가 허용되지 않은 노비와는 달리, 대부분이 소작농인 양인의 경우 응시는 허용되었지만 현실적으로 이들이 약 20년 동안이나(문·무과급제자의 평균연령은 30대 초반) 과거 준비에 매달릴 수 없었다. 따라서 양반사대부층이 문·무과를 독점하다시피 했다.¹⁷⁾ 이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양반사대부 가문은 무자지간, 형제지간에 문·무과 출신이 혼재했고, 문·무반간의 자녀 혼약도 흔했다.¹⁸⁾

그런데 16세기에 이르면 무과출신이 여전히 관직에 임명되고 일부는 고위 문반 요직에도 진출했지만 전반적으로 중앙관료 체계내에서의 입지는 좁아졌다.¹⁹⁾ 특히 외척세력이 득세한 16세기 중반의 정국에서는 무과출신 중에서도 영향력 있는 인사의 후원을 받는 자가 급제 이후 보다 일찍 좋은 관직에 등용되고 승진도 빨랐다.²⁰⁾ 특히 사화(士禍)와 같은 권력 다툼 속에서 특정 세력이 득세하면 정권수호 차원에서라도 믿을만한 무인을 대거 무과로 등용했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무예와 경서 둘 다 뛰어난 무인을 선발한다는 조선초기의 목표는 유명무실하게 되었다.²¹⁾ 또한 북방의 여진과 남해안의 왜구 등과의 빈번한 마찰을 비롯한 왜란, 호란과 같은 전란은 대량시취(大量試取) 무과의 빈번한 실행을 부추겼다.²²⁾ 특히 15세

16) 윤훈표, 앞의 논문, 52-60면; 심승구, 앞의 논문, 63-71면; Eugene Y. Park, 2000 "Military Examination Graduates in Early Chosŏn: Their Social Status in the Fifteenth Century," *Review of Korean Studies* 3.1, pp. 127-31.

17) E. Y. Park, *ibid.*, p. 141; 박영진, 「조선초기 무과출신의 사회적 지위」, 108면.

18) 박영진, 위의 논문, 22-26면.

19) 『明宗實錄』 권15, 8뒤-9앞면(명종 1553년 7월 己未). 관련된 2차 자료상 논의는 윤훈표, 「조선초기 무과제도 연구」, 52-60면; 심승구, 「조선초기 무과제도」, 63-71면; James B. Palais, 1996 *Confucian Statecraft and Korean Institutions: Yu Hyŏngwŏn and the Late Chosŏn Dynasty*,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pp. 79-88; E. Y. Park, "Military Examination Graduates in Sixteenth-Century Korea," pp. 12-19 등 참조.

20) 『明宗實錄』 권7, 70뒤-71앞면(명종 3년 4월 癸酉), 권22, 68뒤-69뒷면(명종 12년 5월 癸亥), 권30, 31앞면(명종 19년 6월 辛卯). 이 시기 무과출신의 입사 및 승진에 관한 2차 자료상 논의는 E. Y. Park, "Military Examination Graduates in Sixteenth-Century Korea," pp. 12-14, 16-19 참조.

21) 『明宗實錄』 권 27, 21앞면(명종 1561년 4월 戊申). 이 시기 무과를 정치적인 상황에 연관짓는 분석으로는 E. Y. Park, "Military Examination Graduates in Sixteenth-Century Korea," pp. 6-14 등 참조.

22) 『宣祖實錄』 권39, 30앞면(선조 26년 6월 甲辰), 34뒤-35뒷면(선조 26년 6월 丁未); 『光海君日記』(鼎足山本) 권143, 21앞면(광해군 11년 8월 癸酉), 23뒤-24앞면(광해군 11년 8월 戊寅), 권144, 12뒤-13앞면(광해군 11년 9월 壬寅); 『松窩雜記』(『燃藜室記述 別集』 권10, 3면에서 재인용); 『暹川集』(『燃藜室記述 別集』 권10, 5면에서 재인용); 『芝峰類說』(『燃藜室記述 別集』 권10, 4면에서 재인용). 이러한 추세에 관한 논의는 이흥두, 「무과를 통해 본 조선 후기 친인의 신분변동」, 269-307면; E. Y. Park, "Military Examination Graduates in Sixteenth-Century Korea," pp. 5, 23-25 등 참조.

기 말부터 성년에 이른 양인 남자는 군포(軍布)의 남부를 통해 군역을 실질적으로 면제받기 시작했기 때문에 무과의 빈번한 시행은 부족해진 병력을 보강하기 위한 국가의 미봉책으로서의 성격도 강했다.²³⁾

하지만 이 시기에도 무과급제자의 신분은 전반적으로 양반사대부층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보다 많은 무과급제자 확보에 다급해진 국가는 한량, 서얼, 노비 등 이전 시기에는 응시가 허용되지 않았던 부류에 대해서도 응시조건을 완화했지만²⁴⁾ 종래와 마찬가지로 집권층이 무과를 독점하다시피했다. 양반사대부 기문들도 문과와 무과 중 어느 한 쪽만을 선택하지 않았다.²⁵⁾ 가족 내에도 문과, 무과 출신이 혼재하는 경우가 허다했고, 시돈기간에도 문과와 무과의 사회적, 신분적인 벽이 없었다.²⁶⁾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17세기부터 바뀌기 시작했다.

3. 조선 중·후기의 무과와 양반사대부 집단의 계층분화

17세기 중반 이후 외세로부터 군사적 위협이 전무했지만 무과의 빈도수와 급제자수는 감소하지 않았다. 한 번에 수백명, 심지어는 수천명의 합격자를 배출하는 무과가 빈번했는데, 급제자수가 증가하다보니 응시자의 신분적 배경도 자연히 더 다양해질 수밖에 없었다.²⁷⁾ 무과의 위신이 저하되는 상황에서 지천(遲川) 최명길(1586~1647), 우암(尤庵) 송시열(1607~89), 약천(藥泉) 남구만(1629~1711), 다산(茶山) 정약용(1762~1836)과 같은 양반사대부 상당수는 다양한 무과제도 개혁방안을 제시했지만 추세에 근본적인 변화는 없었다.²⁸⁾

23) J. B. Palais, *op. cit.*, pp. 15-17, 61-91 ; 한영우, 1997 『다시 찾는 우리 역사』 경세원, 289면.

24) 『宣祖實錄』권17, 3앞면(선조 16년 2월 을미). 응시조건 완화에 관한 논의는 E. Y. Park, "Military Examination Graduates in Sixteenth-Century Korea," pp. 22-23 참조.

25) 심승구, 「조선 선조대 무과급제자의 분석」, 47-87면 ; 심승구, 「임진왜란 중 무과급제자의 신분과 특성」, 109-46면 ; 심승구, 「임진왜란 중 무과의 운영실태와 기능」, 69-122면 ; E. Y. Park, "Military Examination Graduates in Sixteenth-Century Korea," pp. 5, 28-29.

26) E. Y. Park, *ibid.*, 46-49.

27) 『承政院日記』(국사편찬위원회 영인본, 1987) 원본 265책, 탈초본 14책, 65앞면(숙종 4년 5월 5일 甲辰) ; 『仁祖實錄』권33, 6앞-7뒷면(인조 14년 7월 乙丑) ; 『松窩雜記』(『然藜室記述 別集』권10, 3-5면에서 재인용). 이러한 현상에 관한 논의는 이홍렬, 「만과 실행의 정책사적 추이」, 229면 ; 송준호, 1976 「조선 시대의 과거와 양반 및 양인 (I) : 문과와 생원진사시를 중심으로」 『역사학보』 69, 114-16면 ; 송준호, 「이조후기의 무과의 운영 실태에 관하여」, 42면 ; 심승구, 「조선전기 무과연구」, 94면 ; 정해은, 앞의 학위논문, 17면, 21-22면, 33면, 35면, 80-82면 ; 정해은, 「병자호란시기 군공면천인의 무과급제와 신분변화」, 76-93면 등 참조.

그러면서도 중앙관료조직에 무반을 충원한다는 무과의 본래 기능은, 또는 중앙관료조직에 무반을 충원하는 제도라는 무과의 본래 기능은 유지되었다. 세습당쟁이 격화되면서 18세기에 이르면 소수의 재경(在京) 양반사대부 가문이 문반 요직을 독점, 대부분의 양반사대부는 중앙권력구조에서 주변화되거나 아예 소외당하게 되었다.²⁹⁾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의 일부 양반사대부 가문은 관직을 얻기 위한 방법으로 문과대신 무과를 선호하면서 어느 한정된 친직계 범주 내 구성원들 사이에서만 아니라 대대로 무과출신 무반을 배출하는 별열무반 가문으로 변신할 수 있었다.³⁰⁾ 따라서 18세기 이후 서울 거주 양반신분의 과거급제자를 놓고 볼 때, 형제지간은 물론이요 8촌 정도의 친족범주 내에서는 문과가 아니면 무과 어느 하나에 특화되었지 문·무과급제자를 모두 배출하는 가문은 드물게 되었다.³¹⁾ 예컨대 조선중기의 무신 이순신(1545~98), 신립(1546~92), 유포(柳浦) 구인후(1578~1658) 등의 후손들은 조선말기까지 대표적인 별열무반가문을 형성하였다.³²⁾

별열무반가문 출신의 무과급제자는 대개 무반직이나 군사(軍事) 업무와 관련이

- 28) 『暹川集』(『燃藜室記述 別集』 권10, 5면에서 재인용); 『尤菴集』(『燃藜室記述 別集』 권10, 5면에서 재인용); 『備邊司謄錄』(규장각 원문정보 뷰어 제공 원본) 28책, 4앞-뒷면(현종 10년 1월 7일); 『備邊司謄錄』(『燃藜室記述 別集』 권10, 6면에서 재인용). 조선 후기 무과 운영에 있어서의 체문제에 관련된 연구로는 송준호, 「이조후기의 무과의 운영 실태에 관하여」, 26-36면 참조.
- 29) 李重煥, 『撰里志』(한국역사연구회 19세기 정치사 연구반, 1990 『조선정치사(1800~1863)』, 청년사, 1권, 165면, 193면에서 재인용); Edward W. Wagner, 1974 "The Ladder of Success in Yi Dynasty Korea," *Occasional Papers on Korea*, pp. 3-6; C. Kenneth Quinones, 1975 "The Prerequisites for Power in Late Yi Korea," Ph.D. dissertation, Harvard University, pp. 144-47; C. Kenneth Quinones, 1980 "Military Officials of Yi Korea, 1864-1910," 『제1회 한국학 국제학술회의 논문집』, 한국정신문화연구원, 697-700면; Kawashima, 1984 "A Study of the *Hyangari* Kin Group and Aristocratic Localism in the Seventeenth- and Eighteenth-Century Korean Countryside," *Journal of Korean Studies* 5, pp. 11-16; 이태진, 1990 「18세기 남인의 정치적 쇠퇴와 영남지방」 『민족문화논총』 11, 195-96면; E. Y. Park, "Military Examination Graduates in Sixteenth-Century Korea," pp. 39-40.
- 30) 『仁祖實錄』 권28, 33뒷면(인조 11년 7월 壬寅); 『正祖實錄』 권18, 52앞-뒷면(정조 8년 11월 己巳) 등의 기사가 이를 잘 반영한다. 관련된 논의는 정해은, 『조선후기 무과급제자 연구』, 81면, 102-13면 등 참조.
- 31) 한국역사연구회 19세기 정치사 연구반, 『조선정치사』 1권, 236-56면, 327-39면; 차장섭, 1997 『조선후기 별열 연구』, 일조각, 58-62면, 279-340면.
- 32) 『武譜』,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장서(2-1741); 『武譜』,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장서(2-1742); 『武譜』, 하버드대학교 Harvard-Yenching Library 장서(K2291.7/1748a); 『武譜』, 하버드대학교 Harvard-Yenching Library 장서(K2291.7/1748); 1791 『平壤趙氏世譜』 권1, 2앞-6뒷면, 권14, 1앞-2앞면, 4앞-16뒷면, 19뒤-29앞면; 1898 『德水李氏世譜』 권12(辛上), 12뒤-17뒷면, 66뒤-102뒷면, 권13(辛下), 1앞-32뒷면, 권14(壬上), 38뒤-96뒷면, 권15(壬下), 1앞-32앞면, 권15(壬續), 1앞-4앞면; 1906 『綾城具氏世譜』 권10, 2뒤-9앞면, 15뒤-70앞면, 85뒤-102뒷면, 권11, 1앞-107뒷면, 권12, 1앞-108뒷면, 125앞-146뒷면, 권13, 1앞-141뒷면, 권14, 1앞-151뒷면; 1926 『靑丘氏譜』, 척첩대; 1931-33 『黃姓大同譜』, 만성대동보간행소; 1979 『全義禮安李氏族譜』, 진의·예안·이씨대동보간행위원회, 1권(首編), 36면, 3권(上), 6-24면, 3권(中), 50-197면; C. K. Quinones, "The Prerequisites for Power in Late Yi Korea," pp. 144-47; C. K. Quinones, "Military Officials of Yi Korea," pp. 697-700; 차장섭, 위의 책, 65-66면, 85-88면, 200-4면.

있는 문반직에 제수되었지만 고위 요직에서는 배제되었다.³³⁾ 심지어 훈련대장, 어영대장, 금위영장 등과 같은 군문(軍門) 대장직도 시기에 따라서 많을 때는 유력한 문반기문 출신인사가 절반이나 점유하였다.³⁴⁾ 그 대신 별열무반은 권력구조내에서 문반 경화거족의 후원을 받으면서 당쟁에 참여, 그들을 물리력으로 보좌했다.³⁵⁾ 별열무반기문 가운데에서도 부침이 있어서 일부³⁶⁾ 몰락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순신과 같은 저명한 무인의 후손들로 별열무반기문을 이룬 집안의 후손들은 선조의 전통 계승이라는 취지에서 국가로부터 후원을 받아 정식 무과뿐만 아니라 기타 다양한 무예 시험들을 통해 무반직으로 진출하였다.³⁷⁾

또는 17세기 이후 무과를 선호하는 현상은 중앙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었다.³⁸⁾ 다만 이 가운데에서도 무과급제의 추세와 무과에 대한 인식은 지방마다 차이가 있었는데, 영남지방에서는 무과에 비교적 무관심하거나 아예 경시하는 풍조가 강했던 것과는 달리 호남지역 양반사대부의 상당수는 무과로 진출했다.³⁹⁾ 전반적으로 볼 때 남부지방의 재지사족은 중앙에서 파견한 고을 수령을 보좌하면서 향촌 내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또 자신들이 장악한 지역 사회질서를 수호했다. 그런데 기존 향촌 집권층, 즉 '구향(舊鄕)으로 불리는 재지사족의 정치적 입지가 경제적 기반과 문화적 소양을 두루 갖춘 일부 서얼계통이나 평민, 이른바 '신향(新鄕)의 대두로 18세기부터 좁아지기 시작하면서 구향은 자신의 전통적 지위를 과시할 수 있는 문화활동을 강조하는 경향을 보였다.⁴⁰⁾ 그들이 인식하고 있던 양반사대부라는 신분은

33) 姜敷錫, 1925 『典故大方』, 한양서원, 권2, 1앞-33앞면; 정혜은, 앞의 학위논문, 224-38면.

34) 한국역사연구회 19세기 정치사 연구반, 『조선정치사』 2권, 774-6면.

35) 차장섭, 앞의 책, 202-4면.

36) 『明宗實錄』 권6, 26앞면(명종 2년 9월 己巳); 『氏族源流』 85-87면(1991 보경문화사 영인본 면수), 143면; 『萬姓大同譜』 권1, 99앞-뒷면, 권2, 218앞면; 1980 『密陽朴氏糾正公派大同譜』, 밀양박씨규정공파대동보 편수회, 1권, 1-2면, 4면, 45-47면, 2권, 446-532면, 953-1157면; 1988 『廣州李氏大同譜』, 광주이씨대동보 편찬위원회, 1권, 3-5면, 16-17면, 188-90면; Dong Jae Yim, 1976 "Factional Ties in Seventeenth Century Korea: A Reevaluation of Traditional Concepts," Ph.D. dissertation, Harvard University, pp. 143-70.

37) 『備邊司謄錄』 6책, 71앞-뒷면(인조 19년 5월 11일), 72앞면(인조 19년 5월 13일); 『英祖實錄』 권103, 4앞면(영조 40년 1월 壬申); 『正祖實錄』 권18, 52앞-뒷면(정조 8년 11월 己巳), 권54, 2뒷면(정조 24년 4월 辛卯); 『武藝圖譜通志』 35-38면(1970 학문각 영인본 면 수).

38) 『氏族源流』 663면; 『金海鄕案及金海邑誌節略』, 16뒤-17앞면; 『湖南誌』 권2, 103뒷면; 1959 『白氏大同譜』, 백씨대동보 중앙편찬위원회, 1권, 23-24면, 7권, 1-17면, 89-106면, 265-70면; 1985 『昌寧曹氏侍中公派譜』, 창녕조씨 시중공파 우태공종문화회, 1권, 4-6면, 26-27면; 송준호, 1987 『조선사회사연구: 조선사회의 구조와 성격 및 그 변천에 관한 연구』, 일조각, 376-415면; 김준형, 2000 『조선후기 단성지역의 사회변화와 사족층의 대응』,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75면; 정혜은, 앞의 학위논문, 87-88면, 196면, 238-40면.

39) 『備邊司謄錄』 6책, 71앞-뒷면(인조 19년 5월 11일); 『正祖實錄』 권39, 27앞면(정조 18년 2월 壬申).

40) F. Kawashima, *op. cit.*, pp. 20-24; 송준호, 1992 「신분제를 통해서 본 조선후기 사회의 성격의 일면

어차피 과거급제나 관직·관품 여부에 기반하는 개념이 아니었으므로, 무과급제라는 영예는 신향과 같은 새로운 사회세력에게 보다 매력적이었다.⁴¹⁾

지역 거주 유력 가문들이 중앙 양반사대부로부터 신분차별을 받았던 개성과 북부지방은 무과에 있어서도 남부지방과 사정이 달랐다. 전 왕조의 도읍지였던 개성의 경우, 왕조 교체이후 78년이나 경과한 뒤에야 비로소 지역민의 과거응시가 허용되었지만 일반적으로 합격자는 중요한 관직에 등용되지 않았다.⁴²⁾ 조선후기에 이르러 개성지역 유력 가문들은 보다 상업화된 경제에서 주도적 역할을 함으로써 이러한 신분적인 제약조건을 극복할 돌파구를 찾는 동시에 과거시험, 특히 무과로도 활발히 진출하였다.⁴³⁾ 부유한 자가 기근 때 정부에 미곡을 기부하거나 납속(納粟)으로 취득할 수 있었던 고위 관품·관직과 마찬가지로 무과급제도 국가가 공인한 신분과시용 증표로서 남부지방의 재지사족보다는 개성지역 유력 가문들에게 더 매력적이었을 것이다.

북부지방의 평안도와 함경도 지역 유력 가문들의 경우, 북부에는 양반이 없다는 중부와 남부지방 양반사대부의 인식으로 인하여 극심한 신분 차별대우를 받았다.⁴⁴⁾ 이러한 차별의식에는 북부지방이 문화적으로 낙후되었다는 편견과 함께 이 지역 대부분 유력가문이 조선중기 이전의 선대계보가 불분명하다는 사실이 결정적이었다.⁴⁵⁾ 또 중앙관료 양반이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새로 부상하던 북도지역민을

『역사학보』 133, 1-62면; 정진영, 1995 「조선후기 동성촌락의 형성과 발달」 『역사비평』 28, 335-43면.

41) Eugene Y. Park, "Local Elites, Descent, and Status Consciousness in Nineteenth-Century Korea: Some Observations on the County Notable Listings in the *Chosŏn Hwanyŏ Sŏngnam*," 『한국사에 있어서 지방과 중앙』(정두희·Edward J. Shultz 편), 서강대학교출판부, 216-23면.

42) 1918 『中京科譜』, 송양문예사, 권1, 1앞-14앞면.

43) Eugene Y. Park, 2007 *Between Dreams and Reality: The Military Examination in Late Chosŏn Korea, 1600-1894*, Harvard University Asia Center, pp. 100-05; Mark Peterson, 1979 "Hyangban and Merchant in Kaesŏng," *Korea Journal* 19, pp. 4-15. 중앙 권력으로 부터 소외된 개성인의 상업 지향에 대한 조정 논의 관련 기사의 좋은 예로 『宣祖實錄』 권203, 10앞면(선조 39년 9월 병자); 『顯宗改修實錄』 권4, 54앞면(현종 원년 11월 庚午) 등을 들 수 있다. 개성인 출신 무과급제자 파악은 현존하는 무과방목 외에도 1648 『松都誌』 1989 『朝鮮時代私撰邑誌』 한국인문과학원, 2권; 1782 『松都誌』 『朝鮮時代私撰邑誌』 3권; 1802 『松都續誌』 『朝鮮時代私撰邑誌』 3권; 1855 『中京誌』 『朝鮮時代私撰邑誌』 4-5권 등의 명단을 참고하였다.

44) 오수창, 2002 『조선후기 평안도 사회 발전 연구』, 일조각, 21면, 53-64면, 187-204면; Sun Joo Kim, 2007 *Marginality and Subversion in Korea: The Hong Kyŏngnae Rebellion of 1812*,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pp. 35-65.

45) 오수창, 1995 「17-18세기 평안도 유생층의 정치적 성격 연구」, 『한국문화』 16, 93-126면; Kyung Moon Hwang, 2002 "From the Dirt to Heaven: Northern Koreans in the Chosŏn and Early Modern Eras," *Harvard Journal of Asiatic Studies* 62.1, pp. 157-50; S. J. Kim, *op. cit.*, pp. 20-21; Eugene Y. Park, 2008 "Imagined Connections in Early Modern Korea, 1500-1894: Representations of Northern Miryang Pak Lineages in Genealogies," *Seoul Journal of Korean Studies* 21.1, pp. 15-25.

인정하지 않으려는 측면도 있었다.⁴⁶⁾ 그러나 숙종(재위 1674~1720), 영조(재위 1724~76), 정조(재위 1776~1800) 등과 같은 국왕은 왕권확대 노력의 일환으로 문·무를 막론하고 북부지역 출신 인재 등용에 적극적이었기에⁴⁷⁾ 이에 힘입어 무예가 뛰어난 북도민은 평안도과, 함경도과와 같이 특별히 북도지역민을 위해 운영된 과거시험뿐만 아니라 지역에 산재한 군영에서 실시된 다양한 무인선발 시험 등에 합격할 수 있었다.⁴⁸⁾

이러한 여건 속에서 적어도 과거시험 합격자수로만 볼 때 17세기에서 18세기를 통틀어 북도지역민의 약진이 두드러졌지만 중앙의 기득권 세력은 이들에게 의미있는 정치권 참여를 허용하지 않았다.⁴⁹⁾ 팽배한 좌절감 속에서 북도지역의 상류층은 대체로 향촌 내에서의 상층 신분에 만족하였으나 일부는 급진 성향의 지식인과 무사(武士)층 등이 주도한 홍경래 난(1811~12)에 가담하기도 했다.⁵⁰⁾ 19세기에 들어서면 함경도민 무과급제자수가 증가하지도 감소하지도 않은 정체 상태인 것과는 대조적으로, 평안도의 경우에는 홍경래 난의 여파인지 무과급제자수가 격감하였다.

북부지방과 개성의 유력 가문들이 신분상 제약이 있었다면, 문반 경화거족, 재경 별열무반, 그리고 남부지방의 재지사족은 서로를 동질적인 양반사대부 신분집단의 일원으로 인정하였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무과급제가 신분과시용 증표로서 피 지배층에게도 어느 정도의 매력에 있었을까라는 문제와도 직결된다. 이와 관련하여 별열무반을 경화거족가문과 본질적으로 다른 신분집단에 속한 것으로 이해한 연구도 있다.⁵¹⁾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우선 통혼(通婚) 관계만 가지고 볼 때, 문반과 무반이 사돈을 맺는 경우가 16세기 이후 감소한 사실은 앞에서 거론한 바와 같이 별개의 문반가문과 무반가문의 형성을 시사한다.⁵²⁾ 하지만 19세기

46) 국사편찬위원회, 1997 『한국사』, 국사편찬위원회, 33권(조선후기의 경제), 384면; 오수창, 『조선후기 평안도사회 발전 연구』, 139-50면, 205-9면, 312-19면; S. J. Kim, *op. cit.*, pp. 26-34, 66-88.

47) 오수창, 위의 책, 99-126면; 정해은, 앞의 학위논문, 21-22면.

48) 『顯宗改修實錄』 권10, 2뒤-3앞면(현종 4년 11월 丁卯); 강석화, 1997 「조선후기 함경도의 친가위」 『한국학보』 89, 24-60면; 정해은, 위의 학위논문, 124-40면.

49) 『光海君日記』(鼎足山本) 권154, 5앞면(광해군 12년 7월 戊子); Edward W. Wagner, 1977 "The Civil Examination Process as a Social Leaven: The Case of the Northern Provinces in the Yi Dynasty Korea," *Korea Journal* 17, pp. 22-27; 오수창, 앞의 책, 30-36면, 210-32면, 69-72면, 85면, 248-52면.

50) 오수창, 위의 책; Sun Joo Kim, 2005 "Negotiating Cultural Identities in Conflict: A Reading of the Writings of Paek Kyonghae (1765-1842)," *Journal of Korean Studies* 10.1, pp. 85-120; S. J. Kim, *Marginality and Subversion in Korea*, pp. 42-65.

51) Kyung Moon Hwang, 2004 *Beyond Birth: Social Status in the Emergence of Modern Korea*, Harvard University Asia Center, pp. 290-354.

52) 『氏族源流』 338면, 620면, 663면; 『萬姓大同譜』 권1, 243앞면, 권2, 114뒤-115앞면, 235앞-뒤면, 238뒤

를 기준으로 하여 어느 특정 씨족을 놓고 보면 문반 경화거족, 벌열무반, 그리고 재지사족 가계의 공통 직계조상이 조선중기에서 찾아질 정도로 서로간의 촌수가 가까운 경우가 많고, 또한 조선후기에도 서로 양자를 주고 받은 사례도 허다하다.⁵³⁾ 아무리 친직계 조상이 같더라도 양반과 비양반 계파간에 양자를 주고 받는 것은 조선후기 사회의 통념상 불가능하였다.⁵⁴⁾ 따라서 경화거족, 벌열무반, 그리고 재지사족은 서로를 동질적인 양반사대부 신분층의 구성원으로 인정한 사실은 분명하다.⁵⁵⁾ 이 뿐만 아니라 조선중기부터 재정난 해결을 위한 미봉책으로 국가가 허용한 납속 관품 및 관직에 있어서 정부는 대상자 신분의 사족 여부를 고려했지 문반이나 무반이나, 또는 서울 양반이나 재지사족이나를 구분하지는 않았다.⁵⁶⁾

기득권세력의 일원으로서 벌열무반은 양반사대부층이 장악한 기존 체제를 수호하였으며, 그 어느 누구보다도 문·무를 겸비한 유장(儒將)이란 이상을 현실적으로 추구할 수 있었다.⁵⁷⁾ 양반사대부층의 바로 밑에서 능력과는 무관하게 신분적 차별 대우를 받았던 서얼, 전문직 중인(中人), 경아전(京衙前), 향리(鄕吏) 등과 같은 준 지배계층 집단과는 달리 벌열무반은 기존 신분질서에 대해 별다른 불만이 없었다. 19세기에 들어 흥경래의 난과 같은 내적 요소와 병인양요(1866), 신미양요(1871)와 같은 외적 요소 등으로 인한 위기 상황에서 벌열무반은 전장에 나가 자신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했다. 특히 신미양요 때 강화도 광성진에서 벌어진 미군과의 전투에서 부하 수백 명과 함께 장렬히 전사한 서울의 사대부 무반가문 출신 지휘관 어재연(1823~71)의 사례는 무반으로서의 기개뿐만 아니라 국왕에 대한 충성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여겨진다.⁵⁸⁾ 결국 적어도 무과제도의 정치사회적인 기능을 고려할

면, 243뒤-244앞면; 1925 『포산곽씨세보』 권16, 63뒷면; 『白氏大同譜』 7권 8-9면; 1963 『영일정씨세보』 1권, 47-51면; 『昌寧喜氏侍中公派譜』 1권 26-7면; 장필기, 『조선후기 무반가문의 벌열화와 그 성격』, 91-159면, 162-63면, 175면.

53) 『氏族源流』 213면, 777면; 『咸從魚氏世譜』 권1, 1앞-5앞면, 권3, 1앞-1뒷면, 7뒤-8뒷면, 권8, 4뒤-8앞면, 권9, 31앞-33뒷면, 권14, 15앞-16뒷면, 권15, 34뒤-36뒷면, 권20, 4뒷면; 『萬姓大同譜』 1:215a-217a, 2:103a-106b; 1959 『안동김씨세보』 3권, 341면, 344면, 350-51면, 394-95면, 518-19면; 한국역사연구회 19세기 정치사 연구반, 『조선정치사』 1권, 236-56면, 327-39면; 차장섭, 앞의 책, 58-62면, 279-340면.

54) Mark A. Peterson, 1996 *Korean Adoption and Inheritance: Case Studies in the Creation of a Classic Confucian Society*, Cornell East Asia Program, pp. 163-90.

55) 송준호, 『조선사회사연구』, 159면.

56) 『備邊司謄錄』 20책, 79앞-뒷면(현종 1년 11월 25일), 21책, 81앞-83앞면(현종 2년 8월 4일), 37책, 58앞면(숙종 9년 2월 7일), 37책, 152뒤-153뒷면(숙종 9년 윤6월 18일), 44책, 122앞-123앞면(숙종 16년 12월 24일), 57책, 147뒤-148앞면(숙종 32년 9월 10일)

57) 전통시대 중국의 경우 국가와 지배계층 둘 다 별다른 거부 반응 없이 수용 할 수 있는 이상적인 무인인 유장 또는 兵家로서의 박식한 文人이었다. Winston W. Lo, 1997 "The Self-Image of the Chinese Military in Historical Perspective," *Journal of Asian History* 31.1, pp. 15-20 참조.

58) 당시 조선 병사들과 교전한 미군 병사들의 회고록과 미국 언론매체들을 보면 조선군의 완강한 저항을

때, 양반사대부 출신 급제자가 반체제적인 사회세력으로 돌아서는 것을 방지한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무과제도와 체제 불만요소에 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은 하층민 출신 무과급제자도 고려해야만 가능할 것이다.

4. 무과에 대한 피지배층민의 태도

왜란, 호란 등의 전란을 기점으로 피지배층민의 무과응시 및 급제가 증가했다.⁵⁹⁾ 물론 무과에 급제한 후 실질적인 중앙관료 무반으로서의 경력은 조선전기와 마찬가지로 정통 양반사대부 가문 출신에게만 현실적으로 가능했지만 조선후기의 무과 방목을 살펴볼 때 급제자의 상당수는 급제자 본인이나 아버지가 양반사대부 신분일 수 없는 사람의 직역(職役) 소지자로 나온다.⁶⁰⁾ 이 뿐만 아니라 양반사대부 계파가 전혀 알려져 있지 않는 성관(姓貫)이거나, 아니면 평민이나 노비나 사용할만한 이름을 가진 급제자도 상당수 보인다.⁶¹⁾

하지만 양반사대부층은 조선후기에도 여전히 무과에 응시하고 있었으며, 비양반 계층민은 이러한 양반을 모방하였다. 현실적으로 무과급제는 비양반 출신에게 관직이나 권력의 통로가 되지 못했다.⁶²⁾ 그러나 적어도 명분상 양반의 일원인 무반의 등용제도로서 엄연히 존재한 이상, 무과급제는 국가가 공인한 신분과 사용 증표에 대한 피지배층민의 욕구를 어느 정도 충족시켜 주었고 또 장기적으로 급제자의 후손들에게 신분상승의 길을 열어 주었을 것이다.⁶³⁾ 물론 송대(宋代) 이후의 중국과 마찬가지로 고려시대 이후의 한국도 지배층의 주류 문화에서는 숭문비무(崇文卑武)의 사조가 강해졌다. 따라서 문화적 자본으로서의 무과급제는 그 가치가 제한될

국가, 조정, 또는 국왕에 대한 충성심에서 나온 것이라기보다는 대신 문명에 반항하는 미개인이나 심지어는 악마의 발악으로 이해한 듯 하다. Gordon H. Chang, "Whose 'Barbarism'? Whose 'Treachery'? Race and Civilization in the Unknown United States—Korea War of 1871," *Journal of American History* 89.4 (March 2003): 1331-65 참조.

59) 이흥두, 「무과를 통해 본 조선후기 천인의 신분 변동」, 269-307면; 정혜은, 「병자호란시기 군공면천인의 무과급제와 신분변화」, 76-93면.

60) 정혜은, 『조선후기 무과급제자 연구』, 54-55면, 90면, 164면, 278-79면.

61) E. Y. Park, *Between Dreams and Reality*, p. 153.

62) C. K. Quinones, "Military Officials of Yi Korea," pp. 691-700; 정혜은, 위의 학위논문, 187-243면; 정혜은, 「'무보'를 통해서 본 19세기 무과급제자의 관직 진출 양상」, 194면; 정혜은, 「조선후기 선천의 운영과 선천인의 서반직 진출」, 156-57면.

63) 정혜은, 「병자호란시기 군공면천인의 무과급제와 신분변화」, 93-99면.

수밖에 없었다. 그렇지만 무과는 적어도 상징적으로나마 급제자를 장수의 길로 나아가게 했다는 의미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문맥에서 무과와 피지배층민들의 관계를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실증적인 분석 뿐만아니라 무용(武勇)과 관련된 대중문화 매체도 주목 받을만하다. 무과급제 성공담은 구전으로는 판소리, 글로는 한글 고전소설로 전승되어 민중 사이에 널리 유포되었으며, 19세기가 되면 폭발적인 인기가 거의 신분 고하를 막론할 정도였다.⁶⁴⁾ 충(忠), 효(孝), 열(烈) 등 유교의 삼강(三綱)은 더 이상 양반사대부층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판소리나 소설에 등장하는 피지배층출신의 영웅도 지키는 가치가 되었던 것이다.⁶⁵⁾ 고전소설이 판소리보다 알려져 있는 자료가 훨씬 더 풍부한데 그 중에서 특히 군담(軍談)소설이 무과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⁶⁶⁾ 판소리로 대중에게 전달된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군담소설은 영웅의 무용담을 풍부한 상상력에 기반해 독자에게 전달했다. 조선후기에는 교산(蛟山) 허균(1569~1618)의 『홍길동전』과 같은 군담소설이 널리 전파되면서 폭넓은 독자층을 확보하였다. 본 논문의 전개에서 군담소설에 관한 논의가 필수적이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무과에 응시한 피지배층민의 태도에 대한 이해의 폭을 조금이나마 넓히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여겨진다.

군담소설에 등장하는 주인공의 성격은 다양한데, 영웅으로서의 그들의 언행을 통해 무용뿐만이 아니라 당시 사회의 정치적, 이념적, 종교적인 측면 등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영웅의 인생을 구성한 요소는 대개 고귀한 기문배경, 비상한 출생, 성장기 때 전쟁이나 당쟁 등으로 인한 가족의 고난, 가족과의 이별, 후원자와의 만남, 위기 속에서의 위업을 통하여 영웅으로서의 자질 과시, 장년의 부귀영화, 영광의 사후(死後) 세계 등이다. 보다 구체적인 소재로는 신비로운 검(劍)과 말의 획득, 다급한 상황에 처한 국왕을 위한 공헌, 낙도와 같은 비범한 장소에서 아버지 또는 아버지와 같은 인물과의 재회, 여자 영웅의 활약상 등을 선보인다. 일부 작품에서 여성은 강한 지도자로 등장하기도 하나 일반적으로 여성의 활약상은 연인의 동반자로서인 경우가 많다.⁶⁷⁾

군담소설은 역사상 어느 특정 전란을 배경으로 한 ‘역사’ 군담소설과 가공의 전란을 배경으로 한 ‘창작’ 군담소설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임진록』, 『임경업전』,

64) Tong-il Cho, 1986 “The General Nature of *P'ansori*,” *Korea Journal* 26.4, pp. 10-21; 한국고소설연구회, 1994 『고소설의 저작과 전파』, 아세아문화사, 223-97면.

65) E. Y. Park, *Between Dreams and Reality*, pp. 169-70.

66) 서대석, 1985 『군담소설의 구조와 배경』,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pp. 11-14면.

67) 서대석, 위의 책, pp. 228-40 ; 조동일, 1991 『한국문학통사』, 지식산업사, 3권, 470-75면.

『박씨전』 등으로 대표되는 역사 군담소설은 왜란, 호란 등의 전란을 배경으로 하며, 역사적인 인물과 가공의 인물이 뒤섞인 가운데 조선의 승리를 이끄는 영웅이 등장한다. 물론 역사적으로 볼 때 조선중기의 전란은 당시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드러냈고, 조선인들에게 야만인으로부터 여겨오던 적에게 당한 치욕적인 패배라는 충격을 안겨 주었다. 따라서 당시 조선이 처한 현실을 반영한 역사 군담소설은 민중이 영웅의 위업에 관해 듣고 읽음으로써 나라와 민중의 수모에 대한 울분을 달랠 수 있도록 해주었을 것이다.⁶⁸⁾

역사 군담소설과는 달리 창작 군담소설에는 가공의 배경 속에서 활동하는 주인공이 등장하며, 알려진 작품도 오히려 더 많다. 『서대성전』, 『유충렬전』, 『장백전』 등과 같은 창작 군담소설은 민중의 생애에 있어서 보다 많은 기회의 갈망, 중앙 정치권에 대한 반감, 심지어는 기존 체제를 전복시키고 싶은 욕망 등과 같은 소재로 독자에게 다가갔다. 이 가운데 비양반출신 영웅에 관한 이야기는 출신이 한미 하지만 비상한 재능을 가진 주인공이 자신의 진로를 가로막는 인물들과의 투쟁에서 겪는 좌절을 소재로 삼는 경향이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양반출신 주인공이 등장하는 이야기는 상당수가 전장에서의 승리, 개인의 영광, 나라를 위한 승리 등을 서술한다. 장애물을 극복하는데 있어서 남녀를 막론하고 영웅은 초자연적인 힘을 획득함으로써 승리하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선과 악, 현세와 사계(死界), 충신과 간신의 구분 등이 명확하게 드러난다. 궁극적으로 하늘의 질서가 현세의 모든 사건의 종말을 결정한다.⁶⁹⁾

조선후기에 들어와 여성은 비록 현실 세계에서의 공식적인 역할은 극히 제한적이었지만 무협 영웅들로 가득한 상상의 세계에서는 배제되지 않았다. 여성은 조선 후기 한글 소설의 가장 열렬한 독자층 중 하나였는데, 일부 작품은 병법에 탁월한 여자를 주인공으로 삼는다. 전투에서 승리하고 자신의 연인뿐만 아니라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는 남장 여인무사가 등장하기도 한다.⁷⁰⁾ 물론 공적인 영역에서 배척당하기 훨씬 전부터 여성은 과거시험에 응시하거나 관직에 나아갈 수 없었고, 사료(史料)에는 이에 대한 언급조차 없다. 이러한 무조건적인 여성에 대한 차별을 고려할 때 군담소설에서 여성의 존재는 주목할 만하다.

임경업(1594~1646)과 같은 실존한 무인이 등장하는 군담소설 중 일부는 강렬한 무용담을 선보인다. 고문 끝에 숨을 거둘 때까지 만주족에 대한 설욕의 꿈을 포기

68) 조동일, 위의 책, 3:462-63면.

69) 서대석, 앞의 책, 220-31면 ; 조동일, 위의 책, 3권, 462-75면.

70) 서대석, 위의 책, 231-40면.

하지 않은 임경업은 공식적인 역사 밖의 공동체 의식체계 속에서 영광의 지위를 점했다. 『임경업전』속 임경업은 실존인물보다 훨씬 더 위대한 영웅으로서 찬양받았고, 그의 영웅담을 화려하게 묘사한 이 작품은 민중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누렸다.⁷¹⁾ 이야기 속 영웅의 만주족에 대한 설욕은 영웅의 무용에 끌린 남성, 특히 무과에 응시하고자 무예를 연마한 평민층 출신의 젊은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기 충분했을 것이다.

사후에 국가로부터 충신으로 인정받고 또 고전 소설이 찬미한 임경업은 무속인이 신으로 모시는 존재로까지 승화되었다. 무속신앙의 관점에서 볼 때, 임경업의 충성심과 용맹성은 인간에게 보이지 않으면서도 삶을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는 악귀와의 싸움에서도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존재였다. 실존 인물 임경업은 대중문화 속에서도 승화되어 결국은 최영(1316~88), 남이(1441~68) 등과 같은 역사상의 무인을 추앙한 무속신앙의 만신전(萬神殿)에 모셔지게 되었다.⁷²⁾

이상 논의는 조선후기 피지배층민의 문화에 나타난 무용(武勇)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국문학 연구자들의 기존 연구 성과를 소개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하지만 거론된 작품들 속에 무과제도와 무과급제자와 관련 깊은 부분이 어느 정도였는지, 나아가 피지배층민들 사이에 무용의 발휘를 위한 열망이 그들의 무과 응시를 촉진하였다면 이는 한국사를 보다 거시적으로 볼 때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 등에 관한 문제를 제기한다.

시간과 공간을 막론하며 대중적인 인기를 누리는 문화 장르가 사회구성원 상당수가 공감할 수 있는 정서를 표방할 수 있다면 조선후기의 군담소설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조선후기 문화 내에서의 유교담론과 무용의 역할을 고려할 때, 무과제도는 유교의 영향을 받은 대중문화란 영역에서 피지배층민의 신분차별 초월을 가능케 해주었다. 물론 특히 여성과 평민층의 세계관과 직결된 무속은 남성 양반사대부가 독점한 유교와 상충적인 위치에 있었다고 볼 수도 있지만 둘이 공유하는 중간지대도 분명히 존재했다. 예컨대 유교와 무속이 어느 특정 의식(儀式)을 공유하지만 그 의식에 내포된 의미가 다를 수도 있었다. 동시에, 표면적으로는 상이한 유교 의식과 무속 의식이 실제로는 동일한 사회문화적 의미와 기능을 가지는 경우도 많았다.⁷³⁾ 이와 같이 조선후기 무과의 의미도 대상자에 따라

71) 김기현 역, 1995 「임장군전」 『한국고전문학전집』 15권(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19-93면 ; 조동일, 1992 『민중영웅이야기』, 문예출판사, 277면.

72) E. Y. Park, *Between Dreams and Reality*, pp. 173-76.

73) Boudewijn Walraven, 1999 "Popular Religion in a Confucianized Society," in *Culture and the State in Late Chosŏn Korea* (JaHyun Kim Haboush-Martina Deuchler 공동편저), Harvard University Asia Center, pp. 188-92.

서 다르게 해석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출신배경의 응시자가 공감할 수 있는 이상적인 무인은 임금에게 충성하고 백성을 아끼는, 지략과 용맹을 겸비한 장수였을 것이다. 물론 유교적인 의미에서의 ‘양반’은 문반과 무반으로서, 백성들로부터 선발해 국가가 등용한 국왕의 신료였다.

5. 근대성이란 관점에서 본 무과제도의 의의

세계사 속에서 적어도 ‘조선 후기’의 시간적 위치만 가지고 본다면 이상과 같은 무과제도의 변화를 근대성이란 개념과 연결시켜 보는 것도 의미있을 것이다. 물론 근대성이란 개념에 관해 다양한 시각이 있을 것이지만 고대나 중세에 비해 보다 강력한 중앙집권제 국가와 정치참여세력의 저변 확대, 사회변동의 심화, 경제활동의 자유화 및 상업화, 그리고 지배층과 피지배층의 문화영역 공유 등과 같은 체현상이 연구자들로부터 주목 받아 왔다.⁷⁴⁾ 그리고 이러한 근대적인 현상들이 대두하는 조선시대는 흔히 ‘근세’라고 지칭된다. 다만 이러한 시대구분이 한국의 역사적 경험을 일종의 목적론적 마르크스주의 패러다임에 끼워 맞추려는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필자 역시 동의한다.⁷⁵⁾ 같은 맥락에서 특히 북미의 많은 한국사 연구자들은 ‘중세’(medieval), ‘근세’(early modern) 등과 같은 시대구분 용어가 서양사 논의에서만 사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오히려 다른 지역사 연구자들은 ‘중세 페르시아’, ‘근세 아프리카’ 등과 같은 표현을 거리낌없이 사용하는 듯하다. 또한 소위 캘리포니아학과 중국사 연구자들의 경우도 ‘근세 중국’이라는 표현은 명시하지 않지만 명대(明代) 이래 중국은 여러면에서 동시대 근세 유럽과 유사한 사회변

74) 필자에게 특히 영향을 끼친 논저들은 다음과 같다: R. Bin Wong, 1997 *China Transformed: Historical Change and the Limits of European Experience*, Cornell University Press, p. 27, p. 47, pp. 83-88, pp. 101-4, p. 127, pp. 278-93; Andre Gunder Frank, 1998 *ReOrient: Global Economy in the Asian Age*,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pp. 103-30; Kenneth Pomeranz, 2000 *The Great Divergence: China, Europe, and the Making of the Modern World Economy*, Princeton University Press, pp. 32-55, pp. 87-107, pp. 123-43, pp. 168-69, p. 241, p. 283; 미야지마 히로시, 2003 「근대를 다시 본다: 동아시아의 관점에서」(손병규 역) 『창작과 비평』 120, 275-79면; Jun Seong Ho and James Lewis, 2006 “Wages, Rents, and Interest Rates in Southern Korea, 1700 to 1900,” *Research in Economic History* 24, pp. 221-87.

75) 제임스 B. 팔레(James B. Palais) 등의 연구자는 일본식민사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남한의 연구자들이 충분치 못한 증거를 가지고 한국사를 발전 또는 진보라는 시각에서 지나치게 확대 해석해 왔다고 비판한다. James B. Palais, 1995 “A Search for Korean Uniqueness,” *Harvard Journal of Asiatic Studies* 55.2, pp. 409-25 참조.

화를 경험했다고 지적한다.

정치사적 관점에서 대략 1500년에서 1870년 사이의 근세 유럽과 동아시아를 비교하면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다양한 새로운 정치적 현상이 절대주의 국가의 성장과 연결되는 듯한데, 조선후기 무과제도의 정치적 기능도 그 예외는 아니었던 것 같다. 근세 유럽의 경우 중앙집권화에 성공한 절대주의 국가는 결국 19세기에 이르면 민족주의와 제국주의가 결합된 근대 민족국가로 성장하게 되었다. 동시대 동아시아 3국은 국가의 공권력과 위상이 18세기를 절정으로 19세기에 들어와 시련을 겪고 20세 중반까지는 제각기 다른 길을 밟다가 다시 서로 유사한 중앙집권화 국가로서의 진로들을 밟고 있다.⁷⁶⁾ 이러한 장기적인 정치사적 안목에서 조선후기를 보면 위에서 거론된 바와 같이 소수의 문반 경화거족이 중앙집권화가 진행중인 국가의 경영을 독점하면서 권력의 하수인 역할은 별열무반에게 맡기고 나머지 사회구성원들에게는 이보다 훨씬 더 제한된 정치권 참여를 무과와 같은 제도를 통해서 허용한 듯하다. 즉 무과는 정치적인 성격을 띤 제도로서, 중앙집권화된 국가가 정치권 참여 자격을 적어도 사회구성원 일부에게 부여하는 장치였던 것이다.⁷⁷⁾

사회사적인 측면에서 보면 근세의 유럽과 동아시아의 경험은 공통된 요소들이 오히려 더 많았던 것 같은데 이는 조선후기 무과급제자들을 보더라도 짐작할 수 있다. 우선, 전반적으로 근세 유럽과 일본에서 귀족 또는 지배계층의 믿을만한 계보는 중세까지 소급이 되는데, 이들은 근세에 들어오면서 일반적으로 근세 이전으로 계보가 소급되지 않는 중간계층 세력들의 성장에 대처해야 했다. 조선시대 한국도 근세 그 이전, 즉 중세로는 계보가 소급되지 않는 서울의 전문직 중인가문들과 북부지방의 유력 토착가문들이 중간계층을 구성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들은 무과에 활발히 참여하였다.⁷⁸⁾ 17세기부터 전문직 중인가문들이 독점한 잡과가 중앙정부

76) 백영서·박훈·미야자마 히로시 공저, 2009 『동아시아 근대이행의 세 갈래』, 창비, '1장: 100년 전의 역사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나'.

77) E. Y. Park, *Between Dreams and Reality*, pp. 68-116. 이 글의 심사자들 중 한 분은 조선후기를 거시적으로 볼 때 전국의 지배층 내부에서 광범위하게 형성된 국가 및 사회 체제에 대한 합의가 하수인으로서의 별열무반의 활동보다 훨씬 중요한 요소였고, 따라서 별열무반 인물이 최고권력자의 하수인 역할을 했을 것으로 판단되는 상황도 드러나지만 그것을 조선후기의 시대적 성격을 규정하는 차원으로까지 확대 해석할 수 있을까라는 지적을 하여 주셨는데, 필자도 공감한다. 동시에 이러한 문제의식은 별열무반의 주체성에 대한 질문과 상당부분 직결된다고 볼 수 있는 것 같다. 즉 그들은 그저 권력에만 기생하는 존재였을까, 아니면 경화거족 문반과 가치관을 공유하고 또 그 것이 기본이 되는 체제를 수호하고 있었는가? 여기에 대한 답변은 다양한 인간상을 염두에 두어야 하기 때문에 일률적일 수가 없을 것이다. 다만 필자는 별열무반의 역사적 위상이 권력의 하수인이었던가, 혹은 경화거족 문반과 같은 가치관을 가진 집단이었던가 하는 질문과는 무관하게, 적어도 기능적으로 볼 때 별열무반은 기존 체제를 수호하고 권력의 하수인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지적은 무리가 없다고 생각한다.

78) 서울의 전문직 중인 가계들을 수록한 19세기 후반의 자료 『姓源錄』을 보면 조선후기 중인 가문은 양반 사대부 가계에서 갈라져 나온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경우 가계가 조선전기까지만 소급이 된다는 사

내 전문직 관료를 충원하는 제도였던 것과는 달리 무과는 적어도 이들 중간계층 출신 급제자들이 하급, 또는 중간급 무반실직에 진출하는 통로로 기능했고, 적어도 명목상으로는 무반관료로서의 신분달성을 허용하는 제도적 기능을 지녔다. 이에 비해 본질적으로 실제 권력과 보다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문반을 충원하기 위한 문과, 그리고 국가로부터 학자로서 공인받는 성격이 강했던 생원진사시 등은 좀 더 시간이 흘러야 중간계층 출신들의 합격이 두드러졌다.

이와 같이 근세에 성장한 유라시아의 중간계층 세력들은 상당한 경제적인 기반 없이는 기존 지배층의 주목을 받을 수 없었을 것인데, 이 점에 있어서는 조선후기 무과급제자들도 마찬가지였다. 주지하다시피 보다 자유화 및 상업화된 근세 경제는 새로운 사회세력들에게 자본 축적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조선후기의 경우, 무과 급제자들 중 상당수, 특히 서울과 서북지방 출신으로서 신분상 중서(中庶) 또는 평민인 장교와 군인들은 대개 현역 복무와 경제적 활동을 병행하였다. 이들은 군직 복무 이외의 시간을 시장용 작물 농업, 공방 도장직, 도고(都賈), 제조업, 상품 창고 운영업, 통운업 등을 포괄하는 경제활동을 추구하면서 상당수의 경우 양반사대부 권세가들의 비호까지 받으면서 자본을 축적하였다.

피지배층민의 성장과 대중문화의 발달이란 근세적인 현상들은 무과제도의 변화에도 반영되었다. 우선 무과급제는 무예뿐만 아니라 경전에 관한 지식도 요구하였다. 물론 조선후기의 무과는 한두 가지 종류의 무예만 시험하는 경우가 빈번했지만 무과에 급제할 정도 수준의 강경(講經)이 가능한 응시자의 출신신분적 저변이 확대된 것은 분명하다. 이는 조선말기에 이르러 문과 및 생원진사시 합격자의 신분배경이 다양해졌다는 사실을 보더라도 그리 놀라운 현상이 아니다. 그리고, 한글 고전소설, 판소리 등과 같은 장르가 시사하듯이 지배층과 피지배층민은 유교적 패권주의 담론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문화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공유한 것 같다.

이상과 같은 제현상을 볼때 조선의 무과제도는 한국의 근대성 논의에 풍부한 소재를 제공함을 알 수 있다. 조선의 인구가 초기에 2백만에서 5백만명 사이였다가 말기의 1천 3백만 명으로 증가한 사실을 고려할 때 수백만 명의 무과 응시자는 근대성의 제문제론 논의하는데 있어서 통계적으로도 의미있는 데이터 샘플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근세 유라시아란 시각에서 인정할 수 있는 지역간의 공통된 현상들은 조선후기의 무과제도를 통해서도 어느 정도 파악되는 것이다. 즉 조선시대 당시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여러 측면에서 고대나 중세보다는 근현대와 보다 유사한 성격들을 가지게 되는 점이 드러난다.

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전국의 주요 양반사대부 가계들을 기록한 17세기 중반 자료인 『氏族源流』를 보면 江陵金氏와 같이 극소수를 제외하면 조선시대 양반사대부 가계는 나팔여초, 즉 중세 이전으로는 소급이 되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

물론 예전 재북미 동아시아 연구자들간의 주류시각이었던 ‘충격과 반응’(impact and response) 패러다임의 한계는 이미 많이 연구자들에게 지적되었지만 근세 유라시아란 시각에서의 보다 적극적인 논의는 지금부터가 시작이 아닌가 싶다.⁷⁹⁾

조선의 무과제도는 조선사회의 성격뿐만 아니라 보다 거시적인 시각에서 볼 때 한국사에서의 주체성과 근대성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조선사회에서 무과제도와 같은 사회 진정제의 효력은 권력의 주변에 있거나 소외된 사회구성원 중 경제적인 여유와 문화적 소양을 갖춘 세력이 국가로부터 공인받은 신분과시용 증표 획득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라고 판단했는지와 무관하지 않다. 19세기에 들어와 격증한 사회동요는 증표획득의 가능성을 별 의미 없다고 보거나 아예 무시하는 사회구성원이 증가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동시에, 조선왕조 체제 자체를 부정할 정도의 새로운 비전 제시나 물리력 행사가 적어도 식민지화 이전에는 없었다는 사실은 무과제도와 같은 통치기구가 근세 아시아와 유럽에 보편적인 현상 중 하나, 즉 정치권 참여를 갈망하는 사회적 저변의 확대란 문제에 제한적이거나 대응해 나갔음을 시사한다.

주제어 : 조선, 무과, 무반, 무인, 신 분, 지배층, 피지배층, 경화거족, 벌열
무반, 재 지사족, 군담소설, 근대성, 근세

투고일(2010. 5. 14), 심사시작일(2010. 5. 17), 심사완료일(2010. 6. 8)

79) 동아시아 근대사를 ‘충격과 반응’ 패러다임에서 서술한 통사로는 John Fairbank, Edwin Reischauer, and Albert Craig, 1989 *East Asia: Tradition and Transformation*, revised edition, Wadsworth Publishing이 대표적인 저서일 것이다.

<Abstract>

The Late Chosŏn Military Examination System and Korean Modernity

Eugene Y. Park *

This study assesses the significance of the late Chosŏn military examination system in the context of Korean modernity. The military examination system underwent changes that suggest a broadening social base of political participation, increased social mobility, enhanced cultural diversity, and greater economic liberalization—all of which arguably are hallmark features of an early modern Eurasian society. In the case of late Chosŏn Korea which relatively free from invasion and rebellion, millions of Korean men chose to take the examination for military appointments. Utilizing a large database of some 35,000 military examination graduates (roughly a fifth of all men who earned their degrees from 1402 to 1894), this study argues that the military examination not only spurred the subdivision of the ruling elite, the aristocracy, into central civil official, central military official, and local aristocrat families but also contributed to the coexistence of aristocratic Confucian and syncretic popular cultures. The coexistence sustained cultural arenas where the elites and nonelites could share social values in more simplified forms, although ultimately derived from the Korean brand of Confucian ideology. For social elements with no realistic prospect of meaningful political participation, a military examination degree functioned as both a state-sanctioned status marker and a symbol of martial prowess, both of which potentially upheld a cardinal Confucian virtue—loyalty to the ruler.

Key Words : Chosŏn, military, examination, elite, aristocracy, nonelite, modernity

* Korea Foundation Associate Professor of History, Department of History, University of Pennsylvania